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오리전문 육가공업체로 자리매김
2세 경영체제 전환으로 경쟁력 UP

㈜청산식품

안희복 대표·안원균 이사

오리산업에 제대로 자리잡기 전부터 오리사육을 시작한 청산식품 안희복 대표는 오리전문 육가공기업 ㈜청산식품을 설립하고 오리산업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청산식품 안희복 대표는 경기도 안산에서 처음 오리를 키우기 시작해 안성으로 농장을 이전한 뒤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90년대 초반 간이도압장을 설립해 유통업체 진출했다.

이후 1996년 청산식품을 설립하고 육가공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청산식품도 다양한 오리고기 가공품을 개발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오리고기 소비증가와 오리산업 성장과 함께 청산식품도 사세를 확장해 가며 2010년 현재 위치로 가공장을 확장 이전해 자리잡았다.

특히 청산식품은 최근 2세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안희복 대표가 축산업을 전공하고 서울우유에서 근무하고 있던 안원균 이사를 불러들인 건 9년 전이다. 경영수업을 받아온 안원균 이사는 일반 소비자용은 물론 학교급식용, 홈쇼핑, 오픈마켓 제품을 개발해 한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청산식품의 가공공장은 위생실 2곳. 가공실, 포장실, 시험실, 냉동·냉장실, 텀블러, 훈연기, 냉각기, 금속검출기, 중량선별기 등 당시 최신시설을 갖췄다. 또한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동선을 설계했다. 특히, 가공장 설립 그해 식용포장처리업, 식용가공업 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 받았다.

안 이사는 "축산물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청산식품은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식생활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축산 가공품 개발·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이사의 노력으로 청산식품은 오리로스, 통오리, 오리 주물럭 등 신선육 제품과 훈제 바비큐, 통오리, 북경오리 바비큐 등 훈제 제품, 오리떡갈비, 오리소시지, 훈제삼겹 등 가공제품 등 3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청산별덕, Meat Masters(미트마스터) 브랜드 제품과 오리 전문 식당과 학교, 홈쇼핑, 편의점 등에 OEM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청산별덕'은 청산식품이 오리육의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대표브랜드이자 마더브랜드이다.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의 음을 딴 '자연의 별난 오리고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청산식품은 본격적인 급식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19년 'Meat Masters(미트마스터)'를 런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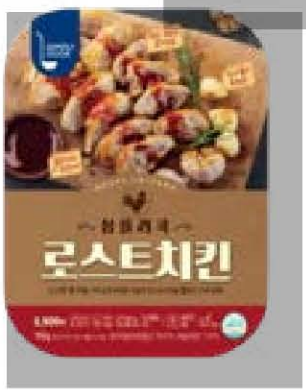
청산별덕
Happy Duck

MEAT MASTERS
Meat Masters
고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

사육-도압-가공 경험, 오리를 잘 아는 기업
육가공 노하우로 다양한 오리고기 제품 공급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급식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폭립을 급식용으로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제품개발도 진행했다.

안원균 이사는 "현재 청산식품의 제품의 90% 정도가 B2B 납품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식 비율이 많이 는 만큼 청산식품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B2B에 치중되어 있던 판로를 다각화해 B2C 매출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먹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생산·브랜드마케팅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i n t e r v i e w

안희복 대표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단의 지원책 절실”

안희복 대표 오리협회 4대 회장 역임 오리협회 설립 등 오리산업 발전 기여

청산식품 안희복 대표는 1985년 처음 오리농장을 시작해 37년간 오리와 함께 걸어온 오리산업의 산증인이다.

특히 안희복 대표가 오리농장을 시작한 80년대는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였으며 농촌에서 단순히 부업으로 오리를 키우던 시절이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리농장을 시작했던 안 대표는 안성으로 농장을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리를 아무리 잘 키워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도압장도 없어 산오리로 유통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대표는 단순히 산오리로 판매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간이도압장을 설립했다. 도압장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과 공부를 해 가며 어렵게 간이도압장을 설립해 오리고기 유통을 시작했다.

유통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오리는 타 축종과 비교하면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이었다.

오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장규호 고문 등과 함께 오리 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오리협회 설립 발기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4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희복 대표는 “오리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던 80년대나 유통업에 뛰어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오리 산업은 부업 축산으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전이었다”라며 “90년대 이후 조금씩 성장하던 오리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희복 대표는 오리 산업의 산증인으로 37년간 오리업계를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오리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희복 대표는 “80년대 처음 오리농장을 시작할 당시는 물론 오리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리 농가들은 정부 등의 도움 없이 성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타 축종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여전히 농가들은 영세하고 축사는 비닐하우스 축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오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오리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